

# 자율화 시대의 경쟁과 협력



이 기 수 | 고려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튀빙겐대학교, 마인츠대학교, 마르부르크 대학교, 하버드로스쿨, 뮌헨 막스-플랑크 인스티튜트(Muenchen Max-Planck Institute), 위스콘신 메디슨로스쿨, 와세다로스쿨 교환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ADeKo(한국독일총동문회) 초대 이사장, Harvard Club in Korea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 「경제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국제거래법」 등 2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간의 협력기구로서 발족한 지 어느새 4반세기를 넘어서 대학자율화시대를 맞았습니다. 규제와 타율의 시대를 넘어서 자율과 책임의 시대에 걸맞는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선진화된 대교협의체가 요구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부회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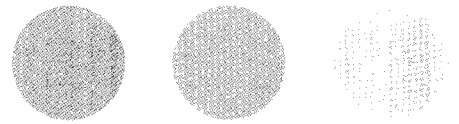
1980년대초 지나친 정부주도의 대학규제, 하향식 대학정책의 실행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지만, 충분한 자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학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토양이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인재양성만이 산업화시대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신념하에 고등교육을 주도해왔지만,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는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타율과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인재를 자유롭게 육성하고 창의적 지식의 생산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학 간의 협의와 상호협동으로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선진화된 대학사회를 열어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해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외형규모면에서 세계 10위에 오른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국가경쟁력면에서는 아직도 한참 뒤져있어서, 지난 5월말에 발표된 2009년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27위였으며, 더욱이 교육 분야의 경쟁력으로 가장 중요한 대학교육은 아직도 51위권을 뒹뒹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끌고 앞으로 견인해 나가야 할 대학 교육이 적어도 국제기관의 평가상으로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학의 획기적인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들이 규제에 묶여 타율에 안주하는 사이 다른 나라의 대학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개방화를 시작한 중국의 대학들이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서 규제중심에서 자율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숙화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대학교육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창의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오늘날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olumn

또는 감성혁명의 시대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게, 스스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타율과 규제의 틀에 익숙한 상황에서의 대학자율화로 의 변화는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감하는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혁하는 과정에서 정부, 대학, 학부모, 시민단체, 학생 등 각 교육주체들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 개방, 다양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은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통섭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개척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과 서로 아우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설득하고, 소통하는 통로를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대교협은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육과 연구에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대학들의 교

류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개방과 자극을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교협이 자율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대학들의 자율과 권익을 옹호함은 물론이고 여전히 국가 및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무거운 책무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부회장을 맡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회원 대학들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대교협의 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